

하나님께 영광 돌린 무안단물 13주년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무안단물을 통해 역사돼 많은 영혼에게 생명과 은혜의 체험을 주고 있다.

다윗의 선 (善)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자도 선대했고, 어떠한 지적과 연단도 감사함으로 받았다.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믿음의 선진들의 선한 고백을 통해 입술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놀라운 일 일어나

기도받고 아들의 생명을 건진 한복호 성도 간증과 겹치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된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손수건 집회 소식.

만민뉴스

제572호 2013년 3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물, 권능의 무안단물 1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무안만민교회는 1999년 2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으로 성전을 이전한 뒤 지하수를 파도 잔물만 나와 심각한 식수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전 성도가 성경 출애굽기 15:25에 기록된 대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그 뒤 짠맛이 사라져 마실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갖가지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7년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미네랄 검사, 중금속 검사, 농약잔류물 검사, 피부반응 검사, 실험쥐를 이용한 독성검사 등에서 안전성과 우수성이 확인됐다. 2010년 5월에는 FDA의 수출품 음료에 필요한 검사를 이수해 미국 수출품 음료로서의 자격을 획득했다.



무안단물터 동산에서 열린 축하공연 후 공연팀과 함께 내빈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사진 ①). 권능의 무안단물 13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초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와 빛의소리중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사진 ②, ③, ④).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사랑을 전하는 물이 있다. 믿음으로 사용할 때마다 치료,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바로 권능의 무안단물이다.

지난 3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소재 무안만민교회(담임 김명술 목사)에서 '권능의 무안단물 1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무안군수, 도의원을 비롯해 많은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지역주민, 성도들이 참석했다.

1부 감사예배에서 김철주 무안군수는 "무안단물 13주년을 맞아 8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안만민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생산

한 친환경 쌀로 구제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고향 사랑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강사 신동초 목사(만민중앙교회 부목사)는 '기적을 구하는 세대'(요 4:48)라는 제목으로 "무안단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문제해결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장차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설교했다. 이어 정구영 목사(교단 부총회장, 전 서울여대 총장)의 축사, 조대희 목사(만민중앙교회 2대대교구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축하공연은 교회 주변을 두른 짙은

안개가 말끔히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좋은 날씨 가운데 무안단물터 동산에서 진행됐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와 빛의소리중창단의 공연 후 내빈들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과 율동으로 무안단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한편, 무안단물터에는 국내외에서 하나님 권능의 현장을 목도하고자 무수한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무안단물을 통한 치료와 응답의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순옥 집사(68, 여)는 "무안단물을 마시면서 심한 위계양이 치유됐고, 눈에 발랐더니 안구 건조 증상이 사라지고 머리에 뿌렸더니 심한 머리 탈모증이 치료됐다."고 간증했다.

또한 일본 가와구치 야스히로 성도(49, 여)는 꽃가루 알레르기, 영국 데이빗 무카사 선교사(48)는 심한 두피 가려움증을, 페루 아나 아동(6, 여)은 상처와 탈모증을 치료 받았다. 케냐 스탠리 보고 목사(35)는 시력이 회복됐고, 인도네시아 시호팡 쿠쏘이 목사(61, 여)는 침수 후 당뇨병을 치료받았다.

이 밖에도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연약해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인도의 사하이 안토 존(13)은 무안단물을 꾸준히 마시고 뿌린 뒤 잘 걷고 말도 잘할 수 있게 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무안단물을 통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끊임 없이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26:23)

다윗의 선(善)

1.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족속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 대치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란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3미터에 가까운 거인으로 대단한 용사였지요. 이런 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큰소리를 치는데 반박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며, 사울 왕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외치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해 그대로 쓰러졌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뒀지요.

다윗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 이름을 의지해 분명히 일어난 믿음의 행함을 ‘선’으로 여기셨습니다.

2.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도 선대하며 감동을 주는 마음

사울 왕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하자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은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지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보지만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찾아다니며 죽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삼상 24장). 다윗의 은신처인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사울 왕이 모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다윗은 사

울 왕의 겹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지요.

또한 사울 왕과 멀리 떨어졌을 때 그에게 지극히 겸비하고 선한 말로써 결코 해칠 마음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군대를 철수해 돌아가지요. 하지만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대적으로 준비합니다(삼상 26장).

그러던 중, 사울 왕 일행이 길가에 진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깊이 잠든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하며 청했지요.

이에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멀찍이 가서 사울 왕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지요.

그러자 사울 왕은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아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말하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만약 도의상 한 번 살려 보낸 상대가 다시 악을 행해 또 죽일 기회가 온다면 다윗처럼 변함없이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마음 중심이 선했기에 선을 행하되 변함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3.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는 중심이었지만, 당시는 성령시대가 아니었기에 깊은 본성 속의 악까지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 평안해졌을 때 본성 속에 있던 악이 드러나는 것

을 봅니다. 사무엘하 11~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온전한 선에 이르도록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즉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시며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 후 이 일로 인한 혹독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았지요.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지적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어진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지적받기를 즐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린 소자가 지적을 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중심에서 겸비함으로 받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왕궁을 빠져 나와 도망칠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버새가 당장 시므이를 처치하겠다고 하자 다윗은 만류하지요. 이처럼 다윗은 연단이 왔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않고 이를 통해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이처럼 중심이 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욥 23:10). 다윗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혹독한 연단을 받았지만 선으로 통과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세세토록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름다운 선을 본받기 위해 항상 선한 것을 보고 듣기를 즐겨하며 주위에 아름다운 선의 향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지혜로운 입술의 열매



삶의 지혜가 가득한 잠언서를 보면 입술의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온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으니 주 안에서 마음에 의를 이루고 조금도 악이 없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_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다. 곧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상대 유익을 구하는 아름다운 말로 양보한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자 롯을 구원해 주셨다(창 19:29).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_ 다니엘

다니엘 6장에 보면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계략을 꾸민다. 즉 왕에게 나아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내리게 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린다. 이에 다리오 왕은 금령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는 이튿날 새벽에 급히 사자 굴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슬피 소리 질러 물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그 결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사자 굴에 던져지고, 왕은 조서를 내려 온 백성이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케 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_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간 요셉이 곤경에 처한다.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을 유혹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에 요셉은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정도를 좇은 요셉의 의로운 마음은 곧 지혜로운 길이 된다. 즉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장차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그릇 준비과정을 속성으로 마친 것이다. 결국 요셉은 애굽 총리가 돼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하나님 섭리를 이루게 된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_ 롯

룻기에 보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룻이라는 여인이 나온다. 그녀는 늙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며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자신의 도리를 좇았다. 룻은 친절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권유를 만류하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 이에 룻은 야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모로서 예수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잠언 말씀 통해 나를 발견하기

◆ 나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는가?

-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19)
-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3)
-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28)
-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17:28)

▶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급히 말을 내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해 꼭 필요한 말만 한다.

◆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장이는 아닌가?

-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26:20)

◆ 말장이 유형 다섯 가지

-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보고 듣고 대하는 것마다 그 입을 쉬지 않고 논한다.
-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계속 논쟁하며 변론한다.
-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다 토해내야 시원함을 느낀다.
- 자기가 듣고 아는 것은 참치 못하고 전하며, 누구하고든 같이 논하려고 한다.
- 옳은 말이든 옳지 않은 말이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말한다.

▶ 말장이란 말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만일 자신이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진다면 ‘나는 말장이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

3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안내!
March (2013.3.10~3.16)
www.gcntv.org

이제부터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계명 1-5
- 하나님의 공의 1-3
- 1차 영혼육 6-8
- 2차 영혼육 1-2
- 창세기 강해 34-38
- 지옥 15-17 / 천국 1-2

GCN TV 특강

- 팔복 2-6 (이수진 목사)
- 나에게 속지 말자 (이수진 목사)
- 생각의 통로 (이미영 목사)
- 영을 향하여 3 (김승신 전도사)
- 'GCN TV 특강' 일곱교회 1-5 (반금선 권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 1-3, 17-18
- 찬양과 경배 (3) 23-30
- 해외성회 시리즈
- 독일연합대성회 3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6, 8-10, 13
- GCN 간증 스페셜 5-6, 8-9
-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한복호 성도 가족이 오현주 권사와 함께했다(사진 좌측부터 한복호 성도, 딸 은혜, 아내 쿠슈첸 성도, 오현주 권사, 아들 은수).

저희는 다문화 가정의 농아 부부입니다. 말레이시아인 아내와 저는 2008년 결혼했습니다. 그 후 사랑스런 남매를 얻었는데, 감사하게 모두 청력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요.

태중에 있던 아이 사산되거나 살아도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었으나

저는 둘째 아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 때 일입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횡경막 탈장(태아의 횡경막에 구멍이 뚫려 복강내 장기가 폐를 누름으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능의 기도로 살아난 아들, 온갖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상태)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대학병원에서 나온 정밀검사 결과는 청천벽력같았습니다.

“심각한 횡경막 탈장 증세로 심장 위치가 바뀌고 탈장된 장기가 폐를 눌러 위협합니다. 태아가 사산될 수 있고 다행히 출산한다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혹여 산다고 해도 평생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희 부부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농아인선교회 부지도교 사님이 심방해 주셨지요. 그때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없었던 이유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방받은 후 지난날을 회개하고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며, 그 해의 십일조를 계산해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다.

2011년 8월 22일, 다행히 아들 은수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횡경막 탈장과 우측 사타구니 탈장 수술을 해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해 10월, 퇴원한 은수는 태중에서 건강치 못해 유아성 천식, 신생아의 지속성 폐성 고혈압 및 고빌리루빈혈증, 동맥관 개존, 좌측 폐의 형성저하,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유리질막 질한 등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은수를 농아인 아내가 키우기란 쉽지 않았지요.

한복호 성도 (농아인선교회)

하나님 권능으로 정상인이 되어

농아인선교회에서 봉사하시던 오현주 권사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선뜻 도와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며 은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주셨지요. 저희 부부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기도했습니다.

은수는 때를 쫓아 당회장님의 기도와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으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농아라는 한계 상황에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몹시 마음 아팠지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 권사님이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은수는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건강이 호전됐고, 마침내 온갖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난 3월 8일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살려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복호 성도의 아들 은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사진은 출산 당시).



해외 소식_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손수건 집회
견지 못하던 3세 유아, 기도받은 후 잘 걸어

지난 2월 24일,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에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열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담임 정명호 목사(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가 환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고 암, 에이즈, 중풍, 말라리아, 심장병, 디스크 등이 치료됐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약해 견지 못하던 세 살난 유아가 기도받은 후 다리에 힘이 주어져 혼자 걷게 된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 이 장면을 본 성도들은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유아는 교회에서 약 7Km 떨어진 마꾼게니에 사는 렌 오포이(3세)다. 형 이엔 아아타(14세)가 평소 동생 렌 오포이를 데리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다. 그리고 이번 손수건 집회를 사모해 동생과 함께 참석해 정 목사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은 것이다. 이웃 사람들은 평소 견지 못하던 아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놀라워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3-3 5층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 새대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운현초등학교 정문 앞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